

# JTS

**VOL.126**  
2017.0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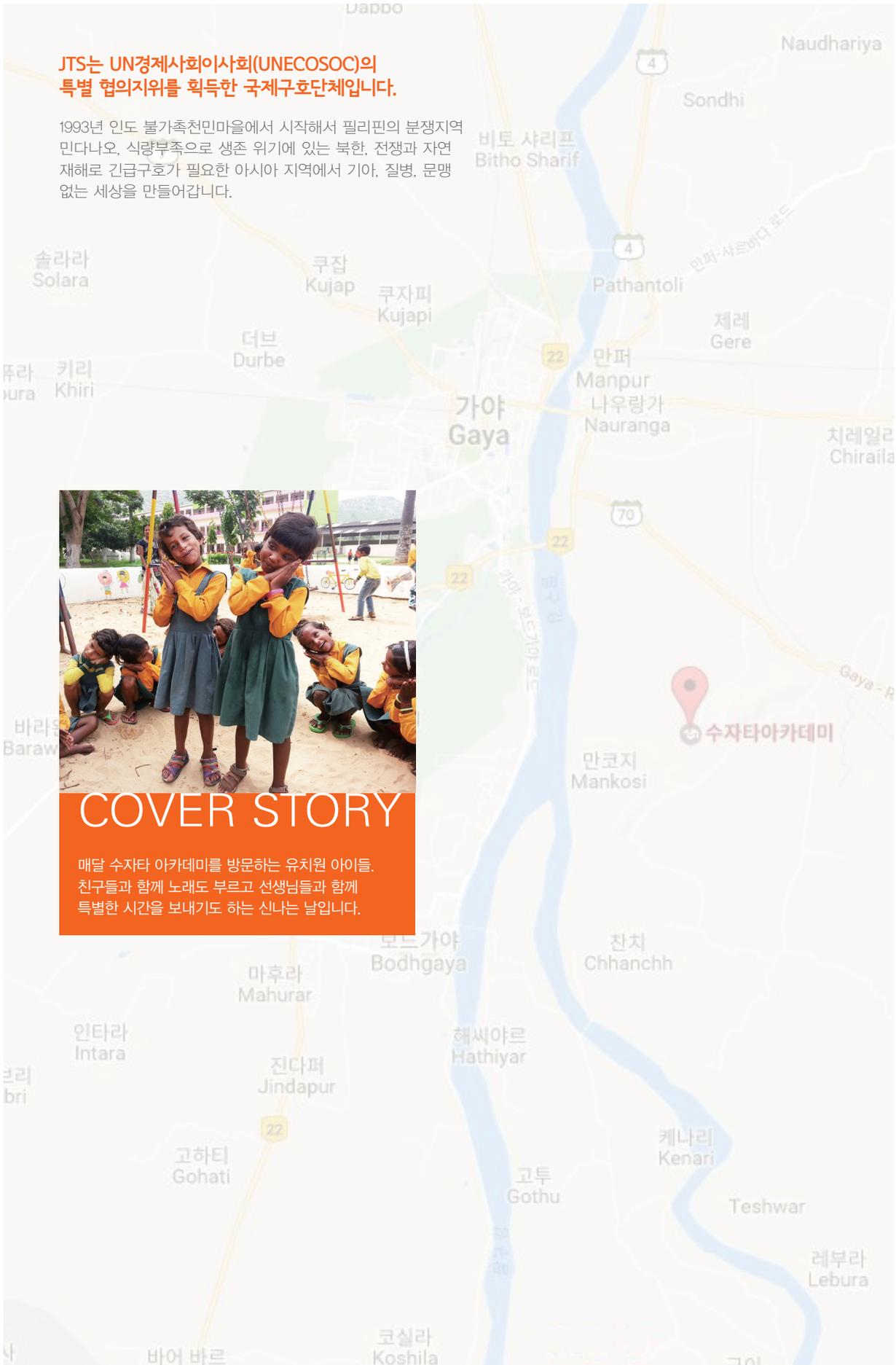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  
재해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명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 COVER STORY

매달 수자타 아카데미를 방문하는 유치원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선생님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신나는 날입니다.





## Contents

### 해외소식

#### 02 나마스페, 동게스와리(인도)

동게스와리 우기준비 \_ 신예슬  
인도 활동 소식

#### 10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우리 마을과 환경의 유기농 성장,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_ 서은실  
필리핀 활동 소식

#### 17 긴급구호(스리랑카)

스리랑카 14년 이래 가장 큰 홍수피해, 그 현장에 가다.

#### 19 긴급구호(필리핀)

마라위 피난민에게 긴급구호를 진행하다. \_ 박시현

### 국내소식

#### 22 함께 하는 사람들

[거제] 애광원 거주인과 함께 수국꽃밭을 거닐었어요  
국내 활동 소식

#### 34 나눔회원소식

후원인의 소리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낸날 2017. 8. 7 퍼낸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낸터 JTS  
도운이 정영미, 최경순, 윤미옥, 윤민아, 이주용, 김기연, 권지연, 김영숙, 신지원, 김옥희, 유주영, 김명순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2  
2017 JUL-AUG

## 등게스와리의 우기 준비

뜨거운 더위가 지나도  
마냥 기빠할 수만은 없는 우기.



우기는 집이 부실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조마조마한 시기이다.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주체성을 가지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이번 우기 준비기간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다.

글쓴이 인도JTS·신예슬 \_ 마을개발팀 활동가



한참을 기다려 도착한 벃단을 지원가구에 전달하기위해 이동중이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지독한 더위의 여름도 서서히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고 우박이 세차게 내렸습니다. 이런 날씨가 한바탕 지나가면 계절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됩니다. 물 한 방울 내리지 않고 45도를 넘나드는 더위를 겪어낸 이곳 사람들은 한바탕 비가 쏟아지길 기다립니다. 우기에는 언제 그렇게 뜨거웠냐는 듯 거의 매일 같이 비가 내리고 때로는 지붕이 뚫릴 것 같은 세찬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비 덕분에 뜨거운 대지가 식혀질지라도 비가 내리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수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인도 JTS 사업장이 있는 동게스와리 15개 마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흙으로 구운 타일로 튼튼하게 지붕을 만들어 놓았지만 수입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은 흙벽에 벃단으로 된 지붕의 가옥구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벃단을 엮어 비가 새는 것을 막습니다. 그나마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벃단을 구입해놓고 우기를 준비해서 지붕을 수리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독거노인이나 남편이 없는 미망인의 경우 우기가 오는 게 난감하고 막막할 따름입니다.

인도 JTS는 동게스와리 15개 마을. 그 마을들의 극빈자 중 지붕수리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들을 위해 매년 우기가 되기 전에 벧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을 리더들에게 지원가구 명단을 받아 동게스와리 내의 74가구의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가구를 방문하니 이미 벧단을 세팅한 사람도 있고, 주변 이웃들은 이미 다 지붕을 수리 했지만 그 가운데는 덩그러니 지붕이 뺨 뚫려있는 집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비가 오면 지붕에 물이 많이 새서 방 한쪽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튼튼한 2층집에서 살고 있는 내가 머쓱하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는 명단을 받은 74가구 중 지원가구를 선별하였습니다. 경제적 수입이 없고 노인, 장애인 가구가 우선순위입니다. 마을 리더들에게 받은 명단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벧단이 가지 않고 엉뚱한 사람에게 지원되게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마을리더의 가족이나 가족 내 소득원이 있고 형편이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 명단에 올라 있기도 했습니다. 다들 벧단이 필요하니 각자의 생활이 어려운 부분을 어필하려고 해 사실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마을리더와 이웃에게 거듭 물어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선별된 19가구에 500단씩의 벧단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벧단을 배달하는 날. 벧단을 실어 배달하려던 트랙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출발했다던 트랙터가 오지 않았습니다. 출발했다는 마을 어귀까지 가서 서성거리어도 트랙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식으로 서두르고 시간을 분단위로 생각하면 아마 인도에서 오래 살기가 힘들지 모릅니다. 기다리다 지칠 때 쯤 저 멀리 벧단을 가득 실은 트랙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벧단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의 방문하여 지붕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원받는 가구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으며 반깁니다. 조사를 위해 방문했던 때의 무거워보이던 모습과는 달리 표정들이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제 마음도 덩달아 즐겁습니다. JTS가 베탄을 지원하면 지원받은 사람은 베탄을 지탱할 나무를 짜서 그 위에 새 베탄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베탄을 집 앞까지 옮기는 것도 또 지붕에 얹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행히 몇 가구는 주변 이웃들이 베탄을 집까지 옮겨주고 지붕에 얹는 것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댁인 짚단이 허술하여 천막으로 여기저기 임시적으로 덮어놓은 지붕



말끔하게 보수된 지붕

며칠 뒤 모니터링을 위해 다시 마을에 가보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끌고 자기 집에 데려가 지붕을 보여줍니다. 척척 쌓여진 베탄이 뿌듯하고 든든해 보입니다. 비가 세차게 내려도 이제 걱정이 없겠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 여러 고민들이 생깁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유기적으로 돕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은 우리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이 마을의 생활이 힘든 가구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 서로 챙기고 살리는 방법은 뭘까.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마을 일, 그리고 결국에는 내 일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또, 1년에 한 번씩 수리하는 베탄 대신, 타일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소 고가의 타일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마음 같아서는 척척 구입해서 척척 지붕을 지원하고 싶지만, 그럴 경우 이들이 마냥 받는 사람이 되진 않을까, 주체성을 살리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과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다시 마을에 나가봐야겠습니다. 답은 마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자세히 보고 방법을 같이 찾아야겠습니다.



**극빈자 구호**

동게스와리 극빈자 69가구에 연 4회 지원 중 2차 식량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 돌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남편이 없는 부녀자 가구를 위해 지원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주 식량으로 사용하는 쌀, 달(노란 콩), 겨자오일을 지원했습니다.



**새 핸드펌프 보링**

한국에서 핸드펌프 전문가(라형기, 배세택)가 오셔서 핸드펌프 설치를 위한 관정굴착(땅파기) 기술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신기술로 동게스와리 의 산 티나가르, 안투비가 두 마을에 관정굴착 작업을 진행하고 새 핸드펌프 기기를 설치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라즈비가 이동진료**

학교에서 비교적 가까운 소라즈비가로 이동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습도도 높은 시기라 어른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의 몸에 땀 띠가 많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서 증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체중아 지원'**

2sd, 3sd, 4sd 등급을 받은 190여명의 아이들에게 쌀과 달(콩), 비타민시럽, 비타민오일, 비스킷이 지급되었습니다. over middle 1~4 단계로 총 6등급으로 나누어 물품과 횟수를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가까운 자그디스푸르와 두르가푸르 두 마을에 임산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여명이 임산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칼슘, 철분과 비타민, 달, 그리고 비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모들의 영양뿐 아니라 아이를 어떻게 씻기고 키우는지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하고 있습니다.유치원 아이들 중 UKG(유치원 2학년과정) 반 아이들은 매월 1회씩 수자타 아카데미를 방문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게 뛰놀고, 간식도 먹고, 신체검사, 비디오 수업 등 특별 시간도 갖습니다.



**오늘만 기다렸어요~!**

유치원 아이들 중 UKG 반 아이들은 매월 1회씩 수자타 아카데미를 방문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게 뛰놀고, 간식도 먹고, 신체검사, 비디오 수업 등 특별 시간도 갖습니다. 이번에는 인도 델리의 주인도 한국문화원에서 방문하여, 신나는 이야기 공연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8  
2017 JUL·AUG

**짜잔~ 미술수업 시~작!**

유치원에서 미술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 1회 진행되는 월례회의에서 미술교육 지도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입니다.



**야호~ 신나는 놀이수업!**

드디어 신나는 놀이수업이 진행됩니다. 스포츠 수업을 위한 축구공, 줄넘기, 야구세트 등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용품이 지급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신나는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 '고가'를 아십니까?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금년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1학년 아이들에게 '고가(Ghoga)'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가는 비닐을 반으로 접고 한쪽을 재봉질하여 고깔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초등학교생들은 비가 오면 이 고가를 쓰고 등하교하게 됩니다. 기념사진을 위해 가방에서 조심스레 고가를 꺼내어 뒤집어 쓰고는 결혼식 신부 같다며 다들 까르르 웃어 대더니 사진을 찍고 나서는 다시 곱게곱게 접어 가방에 넣고 집으로 향합니다.



### 델리에서 온 이야기꾼들

델리의 한국문화원 지원으로 3명의 배우와 2명의 매니저가 수자타 아카데미를 방문하였습니다. 한국문화원과 협약을 맺고 활동 중인 세 배우는 우리의 전래동화인 '효녀 심청', '선녀와 나무꾼', '해님달님' 이야기를 각각 1인극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3번의 공연을 치르며 수자타 아카데미 분교와 본교, 7세반 유치원 아이들까지 총 약 800명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 델리의 주민도 한국문화원에서 방문하여, 신나는 이야기 공연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열연 속에 수자타의 관객들은 넋을 잃고 극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이들, 선생님들, 배우 모두가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해외소식  
**필리핀**  
 살라맛, 민다나오



10  
 2017 JUL. AUG



우리 마을과  
 환경의 유기농 성장,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을리더 연수 - 유기농 강좌



필리핀 JTS센터에서는 유기농법을 주제로 마을리더 연수가 열렸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다물록, 마놀로폴티치, 리보나, 송코, 수밀라오, 다바오에서 마을리더, 농부, 교사, 군청 농업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글쓴이 필리핀JTS·서은실 활동가



마을리더연수\_유기농\_단체사진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필리핀 JTS센터에서는 유기농법을 주제로 마을리더 연수가 열렸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다물록, 마늘로폴티치, 리보나, 송코, 수밀라오, 다바오에서 마을리더, 농부, 교사, 군청 농업담당 공무원 등 41명이 참가했고, 현지인 자원봉사로 대학생 3명과 한국인 활동가가 연수를 준비하고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JTS는 2003년부터 14년동안 문맹 퇴치를 위해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오지 산간 마을에 초등학교를 지어왔습니다. 분쟁이 잦고,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어 생계가 어려운 지역에 JTS는 건축 자재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교 건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약 50개의 학교를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학교 건축에 참여하는 것은 문맹 퇴치에 이어, 빈곤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생기면서 분쟁 때문에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마을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내려놓는 대신 농기구를 들고 농사를 지으며 화해와 협동이 이뤄지고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남쪽의 민다나오 지역 자연환경은 참 아름답고 풍요롭습니다. 공기도 맑습니다. 강렬한 햇살이 내리쬐다가도 돌연 시원하게 비가 내리곤 해서 더위를 식혀주기도 합니다. 3모작을 할 수 있는 기후에 비옥한 토지로 민다나오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대부분은 마닐라와 세부를 비롯한 필리핀 북쪽의 도시로 보내집니다. 특히 JTS센터가 위치한 민다나오의 부키드논주는 필리핀 제일의 농업 생산지역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먹는 델몬트 파인애플과 돌 바나나도 부키드논 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화도 찾아오고 있고 풍부한 자연환경 조건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데도 아직도 대부분의 마을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JTS는 빈곤퇴치를 위해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JTS는 그들이 왜 아직도 가난한가 이유를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맹퇴치에 이어, 빈곤 퇴치를 위해 지속가능한 형태의 마을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사람들의 생활상을 좀 더 세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마을 조사 작업과 마을리더들에 대한 연수로 마을개발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마을리더들, 윤승서 강사와 서은실 활동가와 함께

JTS가 13개의 학교를 지원한 다물룩군은 구릉형태의 지형이 특징입니다. 델몬트나 돌과 같은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농부들은 보이는 언덕마다 제초제를 뿌리거나 불을 질러 옥수수, 바나나, 고무, 코코넛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자, 화학비료, 화학농약 등을 지주나 큰 회사에서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확 후 빌린 것을 갚게 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옥수수 값의 변동으로 농민들 손에 남는 이익은 거의 없고 다음 수확까지 겨우 먹고 살 정도입니다. 게다가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흙은 척박해지고 있고, 또다시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게 되어 농토는 더욱 메마르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원인이 어려가지가 있겠지만 다국적 농업기업의 종자,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이미 점령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에는 가뭄으로 피해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지난 1월 JTS가 주최했던 다물룩군 교사대상 연수에서 교사들은 마을 개발을 위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사들은 마을 개발 프로젝트로 '유기농 텃밭 만들기'를 많이 선정했습니다. 다물룩지역 5~12세 학생들이 또래보다 성장이 늦고 질병에 쉽게 걸리는 영양 결핍 상태가 많아서 유기농 텃밭을 가꾸어 학교급식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교사들도 유기농법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마을리더들도 현재의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유기농법을 주제로, '자닭(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유기농법 전문가인 윤승서 님을 모시고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윤승서님이 유기농강의를 진행중이다

윤승서 님은 최근 기술농업, 선진농업이라는 이름으로 화학비료와 농약, 그리고 농기계로 무장된 상업적인 농업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지난 천 년간 우리조상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농사 짓던 방식을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구로 유기농 시장이 많이 성장했는데, 상업화 되어버린 유기농 시장에서 유기농 농산물은 비싸고,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것,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비용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 어렵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담’ 유기농법은 자연에서 식물이 성장하는 방식의 농사 방법으로, 초저비용으로 고품질, 고수확을 달성하고, 환경과 완벽한 조화 속에 흙과 물을 살리는 농사 시스템으로, 농민의 자립을 돕고, 농업의 주도권을 농민에게 돌려주고, 기업이 생산한 자재에 의존하지 않는 농법이었습니다.



초저비용 유기농 농약 만들기 실습

강연들을 들으면서 마을리더들은 빈곤해결과 환경보존,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마을을 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마을 사람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지만 사뭇 진지한 강연장

연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유기농법을 우리마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조별 토론과 발표를 했는데, 지금 바로 사업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발표되었습니다.

“

유기농 채소 농장을  
함께 만들어 굶주린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지원하겠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참가자들, 그 모습에서 열기가 느껴진다.

유기농 채소 재배 쇼케이스농장을 만들고, 군청과 협력하여 유기농 농장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기농법을 알리면서 수익도 창출하겠다는 것과 초등학교 급식 프로그램으로 중앙 조리설비와 유기농 채소 농장을 함께 만들어 굶주린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

군청 농업 전문가 메리 글렌씨는  
 ‘이 연수에서 배운 지식이 우리 커뮤니티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저비용의 고수확, 고품질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유기농법을 알게 돼서 행복하다.

연수 참가자들은 유기농법으로 농사 짓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도 어렵  
 게만 생각했는데, 이번 연수에서 배운 ‘자닭’ 유기농법으로 지구도 살리고 마을의 빈곤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얻게 되었다며, 내 농장에 적용하고, 마을에도 널리 알리겠  
 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사인 하이즐씨는 ‘연수에 초대받아 감사하다. “Starts with me(나로부터 시작합니  
 다)” 라는 말이 나를 깨운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는 나는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서 내 가족  
 들에게 비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알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학교에서 텃밭을 가꾸서 아이들과 함께  
 관리하고 마을에 유기농법을 알리겠다’ 라고 했고, 또 군청 농업 전문가 메리 글렌씨는 ‘이  
 연수에서 배운 지식이 우리 커뮤니티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저비용의 고수확, 고품질 작  
 물을 재배할 수 있는 유기농법을 알게 돼서 행복하다.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많이  
 보았는데, 유기농법으로 우리 지구 환경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잃어버린 자연으로 돌아  
 가는 열쇠를 찾았고, 이 지식을 여러 마을에 전파할 생각이다.’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3일 동안 참가자들은 아주 적극적이고 집중된 모습으로 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번 연수를 통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유기농법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실제로  
 마을에 적용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JTS는 센터내에  
 데모팜을 운영해서 여러가지 작물을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마을에 전파하려고 합니다.  
 또 하반기에는 다른 주제로 마을리더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JTS의 지속가능  
 한 마을개발 사업에 여러분의 관심과 지혜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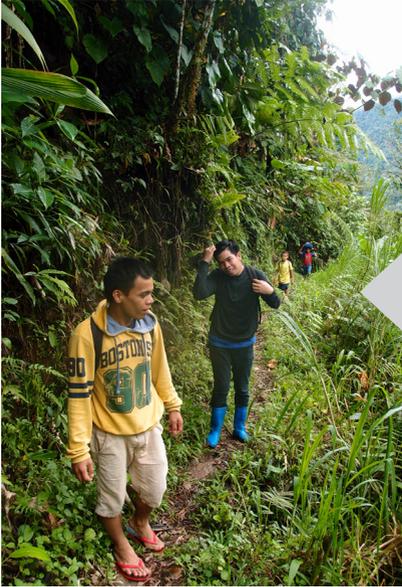
### 필리핀JTS농장에 콩 심기

필리핀 JTS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2시간 정도 현지인 활동가와 함께 대청소, 잡초제거, 밭일 등 센터를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에는 JTS 농장에 강낭콩 심기를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심었던 콩을 수확해서 현지인 활동가와 나누어 먹고, 일부 남겨서 좀 더 큰 밭에 심기로 했습니다. 카라바우(물소)가 갈아놓은 밭에 유기농 거름을 주고 콩을 심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수확을 기대해 봅니다.



### 수밀라오 SPED 센터 기숙사 TV와 부엌 주방기구 지원

필리핀은 6월에 신학기 개학을 합니다. 작년에 성남시 지원으로 지었던 수밀라오 장애인 특수학교(SPED center)도 6월에 개학했습니다. 학교가 처음 열리는 학기라 운영에 대해 준비할 것이 많았는데 선생님, 부모님, 교육청, 군청에서 힘을 모아 잘 준비해주셨습니다. 필리핀JTS도 개학을 맞아 기숙사에서 사용할 주방용품과 담요, 그리고 TV를 지원하였습니다.



**알라원(Alawon) 학교 보조교사 파견**

작년 정식교사 파견에 이어 올해 6월부터 알라원(Alawon) 학교에 보조교사가 파견 되었습니다. 기존에 정식교사 1명이 유치부부터 5학년까지 수업을 담당하고 추가로 성인반(15세 이상의 정규 초등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읽고 쓰는 기본적인 능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까지 개설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자서 다소 많은 아이들, 성인들까지 교육하느라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번 보조교사 파견을 누구보다 기뻐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보다 더 여유가 생긴 만큼 좀 더 집중된 교육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해 봅니다. 정식교사 선생님은 정규과정 학생들을, 보조교사 선생님은 성인반을 맡아서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정식교사 선생님과 함께 알라원 학교에 가는 보조교사 선생님의(사진의 왼쪽에서 두번째) 표정이 사뭇 설레어 보입니다.



**필리핀 JTS 센터 정비 - 센터 경계면 울타리 펜스 설치**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센터 정비를 농장 쪽 센터 경계면에 울타리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센터 부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하지 못했던 작업을 이번에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주변 주민들과 논의 후 설치 공사를 시작 하였습니다. 이번 공사로 정확한 경계면 확인과 센터 시설이 좀 더 든든해진 모습입니다.



## 스리랑카 14년 이래 가장 큰 홍수피해, 그 현장에 가다.

시름은 잠시 잊고 나누는 기쁨에 웃어봅니다.

세계 곳곳의 큰 재난 사고 때문에 *스리랑카*의 홍수는 피해 규모에 비해 국제적인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 듯 합니다. 참혹했던 현장, 그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스리랑카* 이재민들을 위해 JTS가 달려갔습니다.

지난 5월 말 *스리랑카*에서 우기가 시작되면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사망자 200여 명, 실종자 100여 명, 이재민이 50만 명에 육박할 정도의 규모로 14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구호품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JTS 박지나대표가 *스리랑카*에 긴급하게 파견되었습니다.

4차선 도로가 1.5미터 가까이 물이 찼다는 증언을 뒷받침해주듯 물에 잠긴 집의 벽을 보면 침수된 높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페인트 색이 달랐습니다. 집들은 지붕 바로 아래까지 물이 찼다가 센 물살에 가벼운 물건을 다 쓸어 갔기도 했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흙 집을 지어 살기 때문에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피해 주민이 물에 침수되었던 높이를 직접 손으로 가르키고 있다

전부를 다 잃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할까 고민하다 가장 시급한 식량과 주방도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개 지역 3천가구의 피해 주민에게 쌀 20kg, 달(콩) 5kg, 코코넛 오일 1kg, 밥솥과 주전자 각 1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로 인해 지붕이 내려앉고 부서진 모습

개, 냄비1세트(3개입), 접시와 볼 각 4개, 스푼 3개, 주걱 대야 각1개, 대형 타올 2개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여태껏 지원을 받아왔지만 이렇게 많이 준 것은 처음이라며 지친 와중에도 세심한 지원에 반가워했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국JTS 박지나 대표가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재도구와 식량 등을 한아름 받고 미소 짓는 피해주민

### JTS가 어린 아이들을 빼 놓을 수는 없는 일!!

한편 라프나푸르 지역 학생들에게 도시락, 물통, 학용품이 포함된 책가방과 신발 30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지원은 지난 5월 Ineb(국제참여불교연대) 소속 스님들의 한국 방문 일정 중에 홍수 소식을 접한 스리랑카의 스님께서 JTS에 요청하시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학용품과 신발을 받아들이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기뻐했습니다.

JTS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들 덕분에 스리랑카의 피해주민들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용품을 전달받고 기쁜 듯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다.



아이들이 학용품과 신발등 받은 물품을 들고 단체사진



지원물품 받은 아이 모습

## 마라위 피난민에게 긴급구호를 진행하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5월 23일, IS와 마우테(Maute) 그룹이 인구 약 20만명의 마라위(Marawi) 시에 침입하여 주요시설물을 점거하고 불태우자 민다나오섬 전체에 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분쟁으로 인해 마라위 주민의 대부분인 18만 여명이 탈출하였습니다. 이에 필리핀JTS는 6월 1일 일리간(Iligan) 시에 설치된 피난민 대피소에 250가구분의 생필품을 1차로 지원하고, 6월16일 카가안데오로(Cagayan de Oro) 시의 마카발란(Macabalan) 면, 까마만안(Camaman-an) 면 2곳에 191가구분의 생필품을 2차로 지원하였습니다. 총 금액 510,283페소(12,757,075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글쓴이 필리핀JTS·박시현 활동가

“

가장 상황이 열악한  
일리간 시의 산타엘레나  
(Santa Elena) 피난소의  
250가구에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피난민들이 많이 발생하자 마라위시에서 한 시간 떨어진 일리간시 마라위 피난민 대피소 관계자들로부터 피난민을 위한 생필품 지원을 요청을 받고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개 지역 피난소를 조사하였는데 2군데는 이미 구호단체의 지원을 받아 기초 생활 물품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한 곳은 이제 막 생겨서 구호 물품도 없고 임시 체육관에 기본 취사시설도 없이 겨우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난소 현장 모습

필리핀JTS는 가장 상황이 열악한 일리간 시의 산타엘레나(Santa Elena) 피난소의 250가구에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물품을 조사하여 가구별로 말뚝(야외에서 샤워할 수 있는 가림막), 돛자리, 양동이, 접시, 국그릇, 바가지, 비누, 빨래비누, 속옷, 생선통조림, 쌀, 후르츠카테일, 비스켓 등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조리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10대, 가스통 10개 등의 구호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물품 전체 사진



지원물품 셋팅된 모습

6월 1일 구호물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아이들이 해맑게 놀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어두웠던 표정의 어른들도 필요한 물품이 지급되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현지 상황에 맞는 물품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구호물품을 나눠주는 모습

JTS는 다른 긴급구호 단체들과 달리 미리 긴급구호 물품을 구매해 준비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현장에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한 뒤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라위 지역의 주민 대부분은 무슬림인데, 이 시기가 라마단기간 이어서 낮에는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후르즈카테일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지원물품에 특별히 후르즈카테일을 포함하였습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현지 상황에 맞는 물품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품지원 받은 모습

6월 1일 1차 구호를 마친 뒤, 6월 16일 2차로 카가안데오로 시 마카발란 면, 까마만 안 면 2곳에 추가로 긴급구호를 진행하면서 마라위 피난민 긴급구호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음에도 평화의 중요성을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라위 피난민 긴급구호를 진행하면서 분쟁이 있으면 사람들의 삶이 모두 망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던 집을 버리고 거의 맨몸으로 와서 하루 하루 가족들과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식수, 화장실, 취사 시설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대피소에서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는 채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평화가 정말 중요하구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평화의 바탕 위에 있구나하고 느껴졌습니다. 마라위 시가 평화를 회복하여 피난민들이 하루빨리 자신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원물품 전체 사진



## 수국꽃 향기를 맡으러 가자!

애광원 거주인들과 함께 수국꽃밭 거닐었어요.

초여름, 수국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연보라빛에서 진보라빛으로 번져가는 아름다운 수국꽃처럼, 애광원을 방문하는 봉사자들의 마음 또한 아름다운 기쁨으로 물들었습니다.

**글쓴이** 한국JTS경남지부·손경숙 활동가

거제도에 위치한 애광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지난 93년 9월 태풍 매미로 인한 큰 피해때문에 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범륜스님께서 생수를 지원하셨던 곳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스님과 함께 하는 나들이 행사 외에, 매달 네번째 금요일에 거제지부 봉사자들이 애광원에 들러 거주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거주인과 봉사자들 모두  
꽃색깔에 흠뻑 취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하면서  
애빈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수국꽃 색깔 좀 봐요! 윤정영 님과 함께

애광원 시설 안에 있는 ‘애빈하우스’로 가는 길에 보인 수국꽃길.

연한 자주색이었던 것이 하늘색으로 되었다가 다시 연한 홍색으로 된다고 하는 꽃, 수국.

거주인과 봉사자들 모두 꽃색깔에 흠뻑 취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하면서 애빈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거주인의 모자에 달린 꽃과 수국꽃. 주변이 온통 꽃밭이네요!



애빈하우스 안 쉼터.  
거주인에게 자몽주스 먹여주는 것을  
보조하는 김진삼 님

오전 10시부터 오후1시까지 거주인과 함께 꽃밭을 산책한 후, 민들레집에서 점심식을 보조해주었습니다.

거주인들과 하루를 같이 있다보면 봉사자와 거주인 모두 '우리는 하나의 뿌리'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봉사자들은 함께 꽃을 보는 동안 거주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봉사할 수 있음에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자들이 오히려 힐링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민들레집에서 식사보조를 마친 후, 다음 달 금요일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하고 거주인들과 헤어졌습니다.

거주자들을 만난 후 돌아나오며 마주친 애광원에서 보이는 장승포항의 전경. 평소보다 유난히 맑고 높은 하늘을 보고 있으니 가슴속으로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 모두가 꽃입니다.



애빈하우스에서 나와 민들레집으로 향하는길.  
휠체어를 밀어주며 수국꽃밭길을 같이 걷는  
조명순 님



장승포항의 밝은 하늘과 바다



### 안산다문화센터의 특이한 현판식

안산 다문화센터에 조금 특이한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가족분들과 한방진료, 법률상담, 한국어 교사의 여러 봉사자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현판의 글씨는 올해 4월 한국어 교실 학생들과 서울 연동회에 참석하였을 때 붓글씨 부스에서 학생인 쫘앗똥(미안마)님이 받은 것입니다. 그는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대단한 대한민국'이라고 써달라고 신청하고는 그 자리에서 붓글씨 선물을 받았습니 다. 아마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이 곳 센터에 걸어 두고 아시아의 공동체, 세계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현판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나비장터 이야기

안산다문화센터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가족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안산 원곡동 다문화본부 공연장에서 매달 한번씩 나비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은 전국 회원들이 중고 및 새 제품들을 모아서 보내주는데, 의류 및 생필품과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올해 8월이면 2년째를 접어드는데, 이제는 제법 단골도 생겨 장터가 열리기도 전에 손님들이 먼저 와서 기다릴 만큼 다문화가족들의 새로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장터와 함께 안산다문화센터 홍보도 같이 이루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7월에는 봉사자 23명이 참여하여 418,000원의 판매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저 와서 기다릴 만큼 다문화가족들의 새로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장터와 함께 안산다문화센터 홍보도 같이 이루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7월에는 봉사자 23명이 참여하여 418,000원의 판매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한국어 교실 학생들, 서울 나들이 가다

안산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스리랑카와 태국 근로자 7명과 함께 서울 나들이를 갔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최근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준 현장인 서울시청과 세종대로를 가보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하여 한글을 창제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할 때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경복궁을 설명하다 보니 외침도 많았고 내분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사동, 청계천과 남산타워를 구경하면서 맛있는 식사와 사진 촬영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어가 표현이 많아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이번 나들이를 통하여 우리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 뿌듯했습니다.



거울 같은 캠페인

지난 7월 16일 5명의 자원 활동가들이 노원주 (이태윤, 허원석, 원종수, 송채연, 지유정, 강진웅)과 자운고 (전창민, 이현호) 학생들과 함께 JTS 캠페인을 진행하여 111,050원의 소중한 모금액을 모았습니다. (참여 봉사자 : 이산희, 정유진, 김상기, 심상숙, 최인자)  
 오늘은 세 번째 캠페인 날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가슴이 두근두근하여 진정이 안됐지만 오늘은 ' 그냥 하겠습니다 '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모두우리의 아이들입니다" 하고 외쳤는데, 한 명 한 명 마음을 내어 주실 때마다 목소리도 더 커지고 너무 감사해서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었습니다. 불과 일 년 전만 해도 내가 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는데 '지금 하고 있네' 하는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안했던 것들이 참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봉사는 나를 들여다 보도록 하는 거울 같습니다. 오늘 도움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늘 저에게 용기 주시는 선배 활동가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풍문여고길 캠페인 모습**

지난 7월 22일 안국역 뒤쪽의 풍문여고 길에서 8명의 자원 활동가들이 JTS 캠페인을 진행하여 163,600원의 소중한 모금액을 모았습니다. (참여 봉사자 : 송현자, 유영남, 이금란, 조명이, 김지은, 권경희, 배창욱, 우경원)

비 예보 소식과는 달리 덥지만 쾌청한 날씨에 가벼운 마음으로 모금 장소로 이동하

여 캠페인송 합창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풍문여고길 입구 조금 지난 곳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시민들께 JTS 홍보와 성금을 부탁 드리는 방송을 하고, 2인 1조로 인사동 거리로 가는 안국동 사거리 횡단보도와 삼청동 넘어가는 길에서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마이크 방송이 잘 들지 않는 횡단 보도에서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옆에서 캠페인송을 부르며 홍보를 하는 열의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천원 이천원을 꺼내셔서 아이 손에 쥐어 주시면 조그만 손으로 모금함에 넣어주는 어린이, 지나가신 뒤에 다시 뒷걸음 하시면서 성금 해 주신 분, 아주 무표정하게 홍보 피켓을 읽어 보시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성금 해 주신 분, 모두 JTS를 이해하고 믿고 성금을 내 주신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마치고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을 안고 캠페인송을 계속 합창하면서 돌아 왔습니다. 평범한 시민분들의 정성에 마음 따뜻해지고 좋은 공부를 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 빗속의 캠페인

안산다문화센터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가족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안산 원곡동 다문화본부 공연장에서 매달 한번씩 나비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은 전국 회원들이 중고 및 새 제품들을 모아서 보내주는데, 의류 및 생필품과 가전제품등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올해 8월이면 2년째를 접어드는데, 이제는 제법 단골도 생겨 장터가 열리기도 전에 손님들이 먼저 와서

기다릴 만큼 다문화가족들의 새로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장터와 함께 안산다문화센터 홍보도 같이 이루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7월에는 봉사자 23명이 참석하여 418,000원의 판매후원금을 모았습니다.

###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p><b>인도</b></p>	<p>보광, 뿌리앙카, 정동표, 김윤미, 신예슬, 이미경, 김민정, 이정미</p>
<p><b>필리핀</b></p>	<p>안병주, 김상훈, 서은실, 허유진, 박시현</p>



## 후원인의 소리



**김정택**

딸 준아의 첫 생일을 맞아 엄마 배속에 있을 때 하루하루 모아둔 돈을 북한 어린이를 돕고자 보냅니다.

**선인호**

아이 현장체험 학습비가 면제되어 기부합니다.

**김영숙**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남경현**

모든 이들이 진정 행복하기를...

**윤선애**

졸업 및 취업을 축하하며~

**이가슬**

가족 모두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김진옥**

사랑한다. 아가야

**박완임**

더불어 행복하기..

**윤경옥**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귀영**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후원합니다.

**원철웅**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진윤일**

남편(진윤일)의 생일을 기념하여 기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17.05.15 새 생명 가진 것을 축하하며.

**김경미**

모두 건강하세요.

**김소영**

행복한 구름이



# 일시후원금 (2017. 5. 01. ~ 2017. 6. 30.)

## 북 한

강경림 강경림 감미선 감미선 권은하 김경미 김민호 김성남 김소영 김수필 김승희 김아희 김연하 김은아 김정윤 김정택 김지은 김진환 김창하 나경주 남향진 문진영 박시아 박원임 배혜진 백경화 세종법당 소민경 신재영 신종섭 여인옥 와우테크 유경호 유소영 윤정자 이가솔 이기승 이요한 이용수 이유미 이진일 이창재 이현경 이현아 임계선 임소영 조현식 주상복 천세리 허대영 황용진 황윤원

## 인 도

(주)지노이드 고귀영 권은하 김경란 김길원 김도환 김민기 김민자 김소영 김수필 김승희 김승희 김아희 김용덕 김은아 김은주 김지은 김진환 김태경 김학수 김현미 나희원 남향진 문승경 문진영 박근 박미혜 박상철 박시아 박임소 방준석 백경화 서영환 소진호 손은아 신재영 신종섭 유경호 윤미희 이가솔 이용수 이유미 이주형 이진일 임계선 임보경 임소영 정백기 정현욱 조현식 주미영 주상복 천세리 최문경 최영희 허신 황순욱 황용진 황윤원

## 필리핀

고귀영 곽도순 권은하 김도환 김민호 김소영 김승희 김승희 김아희 김용덕 김은아 김종택 김지은 김진환 김태경 김학수 김현미 김현미 나경원 남향진 문진영 박시아 박일규 백경화 신재영 신종섭 유경호 이가솔 이유미 이진일 임계선 임소영 정백기 조현식 주상복 천세리 탁경자 황용진 황윤원

## 전 체

6429 0109634242 jts기부 갈정시 감사합니다 강미란 강성희 강수정 강은경 강정숙 강준숙 고경민 고귀영 고성법당(정토지) 고성어린이날 공서우 공연표 공윤경 광상용 광진호 광창호 광천농협신동 구남서 구혜원 국제구호 권건우 권경영 권도은 권보영 권여아 권은하 권평규부천돼지 금삼승민승필 기원규 기정임 길벗 김갑구(0109) 김경만 김경민 김경태 김경하(웨이마리아) 김경희 김경희98914 김금옥 김기태 김남희 김대광 김덕원5559 김덕주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미아0831 김미영 김미옥 김미옥3437 김민아0831 김민정 김민정(지니모아) 김민정2910 김민지 김민호 김병규 김봉덕 김상수 김석용 김선남 김선영 김선주 김선호 김성욱 김성자 김소영 김소영 김수연 김수영 김수윤 김수정 김숙희 김승희 김아희 김양지 김연옥 김영기 강릉돼지 김영숙 김영숙2 김영준 김영진 김영춘 김영춘 김용덕 김윤경 김은수 김은아 김은 김익현 김인영 김정은 김정화 김종욱 김종임1581 김주철 김종명 김종명 4642 김지식 김지영 김지은 김지훈 김지희 김진숙 김진옥 김진환 김찬우2267 김춘희 김태균 김현근3258 김현근3258돼지 김현도 김현지 김호8650 김효심8604 김휘권 김희순7629 깨장1533기 나무대비판세움 나무대비판세움보살 나연우 나호연 남경현 남상철 남재환 남향진 남향진 노연우 노태곤 노하진 노희경 대구김태식6163 대한불교조계종운주선원 동요엔터테인먼트 딱화네 류수진 무주산 문경장미정 문경태 문덕문 문서준 문정신 문진영 문혜정 박갑수7565 박건희저금통 박경애 박계만 박근택 박금희 박동수 박명숙9323돼지 박미라 박미혜 박순양 박시아 박신서자매저금통약속 박애영 박영규 박영기 박원임 박은경진혜 박은희 박장원3317 박정섭 박정자 박주하 박준영 박준우 박진규 박태화 박현이 박현진 박호용 박화자 반미정 방현희 배동규6047 배병문 배병문2141 배성호 배정기 배진숙 배혜진 백건규 백경화 백익경 백수빈 배두호토타버점 베트남노엔티슈산업 변동해 북한 서금세 서숙이 서승희 서진솔 서혜라 서희정 선인호 선타이 선한솔류션 실현주3767 성윤희 성일주 성현정(5528) 소양속대전 손준욱 송계순 송관우 송근표 송영복 송정열 송중수 송수연 신광성영주돼지 신동근 신원 신은영 신인균2483 신인자 신재영 신종섭 신현주 심경이 심미정3209 안경아 안산다김종임1581 안산다문화(유애경)센터 안산다문화나비장터 안산다문화센타 안산다문화행복 임진선5464 안산스리랑카공동체 안영덕 안정현 안종문 안차애 양길동6643 양승돈 양영준 양지원 군산돼지 여백순0465 여승진 여향배 오금실 오기숙 오윤경 오재호 몽문스님미소원 용인창고정리 문문사문신학감 원철웅 원호연 유경호 유기봉 유동근 유미란 유선희 유숙향 유승열 유연서 유유희6976 유정훈 유진호 윤경미 윤경옥 윤미경 윤미영 윤병덕 윤병은(9488) 윤복남 윤선애 윤세연 윤여훈 윤연숙 윤운자9792 윤정환 윤지연 윤형락 윤희순 이가솔 이경남 이경향 이계희마포8757 이광성 이광주 이귀숙 이기경안산센터 이남기 이동규 이력부북한어린이 이문영5829돼지 이미지 이미향 이민규 이봉란 이상복 이상희9686 이선희 이수빈 이숙 이영삼 이연숙 이영실 이영한 이영화 이원규 이요한 이원성 이원형 이유미 이유빈 이은희 이재성 이정여 이정옥 이주형(대전) 이준희 이진수 이창현 이창훈마포1166 이재은 이준강 이태호 이한근 이해미 이현숙 이혜선 이혜준 인도 인도권진북한천체사업 인문교 임동민 임말계 임병규 임소영 임종택 임중호 임준성 임진선 임준옥 임효진 자비안 장경희 장미정 장세영 장윤실 장유희 장정원 정지영 장창익2737 장현련 장현주 전병찬 전세민 전체사업 전혜진 정경아 정교필 정귀주 정나영 정서영2210 정세운 정소영 정열 25740972 정윤선 정윤점 정은정 정은지 정인규 정인규 정일상 정정희(이상백) 정현욱 조남은 조명애 조병모 조수미 조아연 조양순 조영미 조영자 조진웅 조진희 조현식 주상복 지은아 진유일 차지은 차지은 차춘자 참교육학부모회상주지 채미화 채현주 천세리 천승영 천향숙 천형준 초안핑크리(스리랑카) 최건업 최경숙 최경자 최경희 최동넵 최병조 최삼순 최영환 최정운 최종석 최준영 최준현 최현미 최화숙부천돼지 탁경자 플러스4인방 필리핀 하승우 한국불교대고종극락사 한대륙 한미영 한살림경남소비 한성성 한승운 한신규 한중호 해피빈 허무정미소원 허원진 허은미 허근 현대사업장민 호연무탈출업 황명성 황영욱 황상모 황선희 황소영 황연정 황영애 황용진 황윤원 황재영 황혜연

## 미국JTS 후원금 (2017. 5. 01. ~ 2017. 6. 30.)

이영국	박상희	김학노	35	노유경
임선희	김길남	KYUNG J KIM	Hyang Chu	GWY YOUNG CHAE
박경배	이동영	이재철	Stephany Lee	원윤경
무기명	김성순/최영태	TIP J ENTERPRICES	유럽정토회원	박승용
Mira Shin	COLUMBUS	권해원	워싱턴정토회원	김학노
Hee Jun	JUNGTO	최만성	Benevity	권혁준
San Lee	JONGSIK M AHN	김윤진/황보영/황규현	유승묵	뉴욕법당
Junhyun Park	김성세	BCAJTS(거리모금)	SOO JIN YOUNG	권영미
Sun Joo Oh	김재원	BAKE SALE)	이주희	이학우/이영숙
AJ Seattle	JUNG DEOG OH	정복교	YOUNG S SUH	
Geun-AE Park	정지아	정은희	토론토 법당	
Lauren Carree	JJ FAMILIES LLC	신수지	박승용	



# 나눔저금통 현황 (2017. 5. 01. ~ 2017. 6. 30.)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는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네임펜이나 볼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릉지부** 김영기

**경산지부** 박미애 박미혜 조계량

**계룡지부** 김경수 김선덕 김영숙 엄경애 이재상 정경애

**고성지부** 이계선

**관평지부** 김명신 김민호 김희정2개  
신원식4개 오경희 한성윤 홍지형 황지혜2개

**광주지부** 김복해 김승미2개 김용길 김철주 김혜경 민경희 박사랑 박서진 박영애 박하람 신경희 여수연 윤복순 이선자 이영희 이혜경 임채남 장희연 정영윤 주훈지

**구리지부** 2회

**구미지부** 김성란 김여주 이선희2개 장금림 조미희2개 하경희

**군산지부** 양지원 황명옥

**군포지부** 2회

**금정지부** 김정화 김정희 박상우2개 박애림 배성우 배학래 서정희 옥외숙 장은주 정일곤 전은경

**금천지부** 2회

**김포지부** 윤선희

**김해지부** 2회

**내서지부** 범당 김순정 김영래 박혜정

**노원지부** 6회

**당진지부** 안순희 이한수

**대구지부** 각산동나이스마트 강경림 강유라 무명11개 박정미 범물수성퍼머 스마트 범물GS마트 여병동 윤경화 율하k식자재마트 이도하 장대기 장보고 식자재마트2개 전보민 지산나이스마트 지산동테레사소비센타 지산포인트마트 ok포인트마트2개

**대연지부** 2회

**덕양지부** 2회

**도봉지부** 2회 신분남

**동래지부** 5회

**동인천지부** 2회

**마산지부** 강동훈 권기철3개 김민중 김애라2개 김지훈3개 김태주 김해친 절한마트 김향순 묘락행 무명14개 박성배3개 배순옥 손명자 오정미 이묘락행2개 이미선 이복숙 이행연 이화수 전애열 정현주 조연화 조혜연 최숙현 최천일 하운서

**마포지부** 권보영 이계희 이창훈2개 천향숙

**문경지부** 최우근

**밀양지부** 김정실 무명 박정순 이무자 정도희

**반여지부** 2회

**보은지부** 이갑선 이재숙

**부천지부** 2회 권평규 김남희 김선희 김옥희 김주연 안순옥 이재우 최화숙

**사천지부** 김미경 오경희 최윤진2개

**사하지부** 2회

**상주지부** 범당 정귀해

**서대문지부** 김현근 무명

**서면지부** 2회

**서산지부** 2회

**서천지부** 양순환2개 이창제 최윤정 최효상 한별 허영선 홍은희

**서초지부** 범당 고영미 고유성 고은설 김상기 김정은 김정희 무명16개 문규복 박미연 이은임 최병호신경외과

**서현지부** 2회

**성동지부** 2회

**성서지부** 곽태연 김경자 김도희 김민

수 김민혜 김범수 김준현 김향숙 도미진 류진아 무명2개 박성은 박성은 서은희 손창원 이남숙 이영미2개 이은희 정덕용 정채임 조선연 한영희2개

**송파지부** 법당 김민아 김지성 무명 송성희 신산희 오경자 이기조 정애정 황점숙

**송현지부** 법당 박효진

**수정지부** 법당 김선영 김승환 김은혜 나은영 무명 채한승

**안산지부** 3회

**양산지부** 3회

**연양지부** 2회

**영주지부** 신광섭

**영통지부** 4회 김은영 박은숙 최영순

**옥교지부** 박은선 윤니은 이도경 한원희

**왜관지부** 김심교 장경미

**울산지부** 류호석 무명 새아침연합내과 양승돈 이지혜 이채원 정용한2개 조성욱 GS편의점

**원주지부** 4회

**의정부지부** 3회

**의창지부** 4회

**일산지부** 3회

**제천시지부** 법당 김순옥 박순희

**종로지부** 구명서2개 김은수 김은영 김재복 박금주 박선영 이민순 정순옥 한일홍

**중랑지부** 2회

**진주법당** 2회

**청주지부** 고숙남 김성길 김순남 김현주 무명13개 박영숙 박지미 배정숙 이은선 지명구 제영혜

**합안지부** 3회

**해운대지부** 3회

**화명지부** 김성애 무명 박기원 백기숙 손성욱 신정희 이윤희 정귀자 정진아 조미현

**회봉지부** 무명2개 조정숙 황수미

**흥덕지부** 법당 임병관6개

**기타지역** 김덕원 김은수3개 김현근 김휘권 박근희 박영숙 박장원 심미정 유윤희 이문영 정유선 조지선

**거리모금 현황**

(2017년 5월 1일 ~ 2017년 6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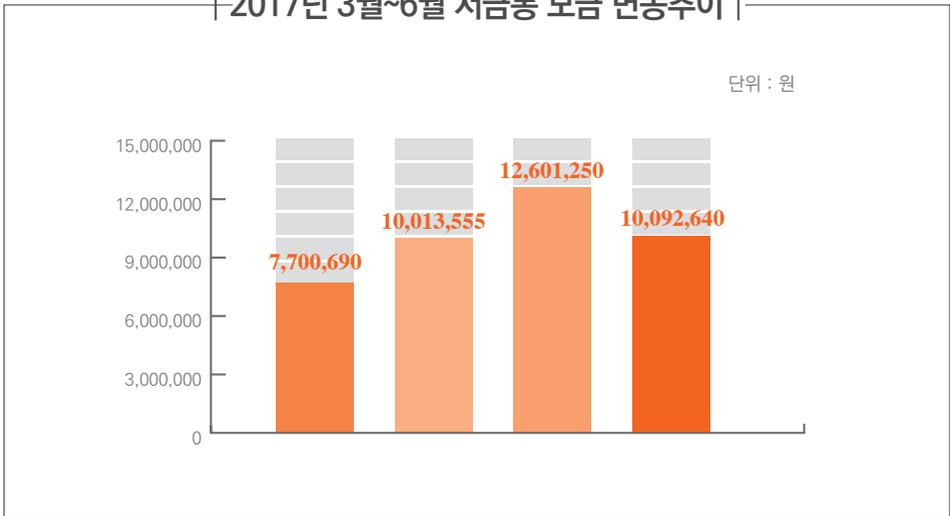
강남 138,000 강동 166,700 강릉 1,003,810 강북 160,000 강서 387,410 강화 305,150 거제 1,242,720 거창 493,000 경기광주 184,910 경산 400,770 경주 1,721,600 계룡 357,100 고성 193,850 공주 260,200 관악 447,980 관평 178,060 광명 394,040 광주 348,070 광진 180,670 구로 188,550 구리 435,010 구미 1,815,160 군산 286,800 군포 257,000 금정 795,960 금천 17,850 기장 146,350 기흥 315,290 길벚 8,144,492 김천 659,230 김포 378,510 김해 859,180 남산 722,720 남양주 299,560 내서 650,220 노원1,559,800 달성 355,750 당진 275,900 대구 2,015,890 대연 561,700 대전 1,411,080 덕양 275,750 도봉 286,930 동대문 104,700 동래 2,909,350 동인천 238,410 동작 104,300 동해 259,170 마포 140,340 모금 125,590 목포 272,550 무주 174,600 문경 323,600 밀양 420,750 부여 246,000 방어 520,360 보

은 102,320 부사 158,220 부안 352,000 부천 700,670 부평 247,430 분당 1,228,990 사천 508,350 사하 1,357,210 상주 560,710 서귀포 108,720 서대문 120,000 서면 1,288,400 서산 580,950 서천 287,600 서초 3,036,490 서현 290,700 성동 79,000 성북 81,550 성서 1,616,540 세종 715,677 송도 176,060 송파 382,620 송현 381,320 수원 884,290 수정 1,210,800 순천 431,350 시흥 339,520 신서 132,650 아산 225,150 안동 460,000 안산 698,660 안산센터 287,240 안성 126,470 안양 616,980 양산 1,367,910 양천 336,280 양평 348,290 연양 203,680 여수 96,500 영주 543,900 영천 122,200 영통 500,550 오산 64,000 옥교 455,790 왜관 210,050 용인 312,900 울산 1,103,090 원주 207,840 은평 437,120 음성 155,300 의정부 256,000 의창 357,180 인천 302,600 익산 124,710 인천 420,410 일산 1,123,730 장유 346,740 전주 223,930 정관 426,870 정읍 72,000 제주 311,340 제천 592,000 종로 154,770 중랑 210,000 중리 618,300 진주 1,226,500 진해 384,040 창원 1,801,020 처인 1,141,390 천안 82,000 청도 436,000 청주 1,180,140 춘천 163,050 충주 787,800 태전 1,066,300 통영 538,700 파주 701,410 평택 514,240 포천 150,110 포항덕산 514,700 포항 양덕 1,213,000 하남 479,600 함안 892,770 해운대 1,540,680 홍성 528,500 화명 1,244,070 화봉 245,000 흥덕 328,400

| 2017년 3월~6월 거리모금 변동추이 |



| 2017년 3월~6월 저금통 모금 변동추이 |





##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자원봉사활동

### 국내 자원봉사와 함께 하세요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http://www.jts.or.kr>

**JTS 자원봉사 문의** : 02)587-8756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 사용처**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JTS 후원 문의** : 02)587-8995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나눔회원활동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_\_\_\_\_

\_\_\_\_\_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0 6 6 5 3